#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이상림 최인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연구보고서 2023-50

####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57-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50



Abstract1
요약3
제1장 서론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9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11
제3절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 설명
제2장 인구이동의 변화와 지역25
제1절 전국 이동성의 특성과 변화27
제2절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의 변화34
제3절 수도권의 인구이동49
제4절 지방의 인구이동
제5절 연쇄이동의 검증
제3장 인구이동의 선택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61
제1절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63
제2절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75
제3절 인구위기 지역 인구이동의 파급효과87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93
제1절 주요 발견 및 시사점	····· 95
제2절 정책적 함의	99
참고문헌	··· 101
브로	105



⟨₩	1-1>	영국의 생애단계와 이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화	24
⟨丑	2-1>	지방의 인구이동 흐름 구성(순이동)	54
⟨丑	3-1>	수도권-지방 인구이동의 연령별 성비 구성	70
纽	3-2>	수도권-지방 성별 인구이동 규모 비교	71
⟨丑	3-3>	출발지에 따른 인구이동 목적지 구성의 성별 차이	72
纽	3-4>	지역 순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변화	80
⟨丑	3-5>	지방소멸지역 거주자의 인구이동 경험별 대졸자 및 관리자·사무직 비율	85
纽	3-6>	전체 인구와 지방소멸지역 유입인구의 연령별 학력 구성 비교	86
⟨丑	3-7>	지방소멸지역 유입인구의 출생지 구성	87
/∏	3-87	지역 인구학적 사회적 유인들 간의 상관관계	29

## 그림 목차

[그림 1-1] 인구의 지리적 이동의 정의 범주들15
[그림 1-2] Lee의 Push and Pull 모델19
[그림 1-3] 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구조들23
[그림 2-1] 연도별 전국 국내 이동의 전체 규모 변화 추이28
[그림 2-2] 연도별 전국 이동률 변화 추이29
[그림 2-3] 권역별 총인구이동 규모의 변화 추이30
[그림 2-4] 연령별 시군구 간 이동률(2003, 2013, 2020)32
[그림 2-5] 연령별 시도 간 이동률(2003, 2013, 2020)32
[그림 2-6] 연령별 시군구 간·시도 간 이동률 비교(2020) ··································
[그림 2-7] 전국 총순이동량 변화 추이35
[그림 2-8] 지역 권역별 순이동량 변화 추이
[그림 2-9] 20~29세 청년집단의 총인구이동량과 총순이동량38
[그림 2-10] 전체 순이동률과 20대 순이동률 추이 비교39
[그림 2-11] 전체 순이동량과 20대 순이동량 추이 비교40
[그림 2-12] 20대 청년과 전체 인구의 인구이동 효과도 변화 추이 비교42
[그림 2-13] 연령집단별 수도권 순이동 규모 추이43
[그림 2-14] 연령집단별 지방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44
[그림 2-15] 시군구별 전체 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46
[그림 2-16] 시군구별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47
[그림 2-17] 수도권 시군구별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48
[그림 2-18] 수도권 시군구별 전체 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49
[그림 2-19] 서울시 구별 전체 인구와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49
[그림 2-20] 수도권 지역(시도)들의 인구이동 흐름(2020년, 순이동 기준)50
[그림 2-21] 수도권 내 인구이동의 목적지별 특성 비교52
[그림 2-22] 수도권 지역(시도)들의 인구이동 흐름(2022년, 순이동 기준)52
[그림 2-23] 지방의 인구이동 흐름 구성(순이동 기준)58
[그림 2-24] 광역시 인근 지역의 인구유출 목적지 비교(수도권과 인근 광역시)50



[그림	3-1] 연령별 이동률의 성별 차이(시도 내 시군구 간 순이동률, 2020)64
[그림	3-2] 연령별 이동률의 성별 차이(시도 간 순이동률, 2020)65
[그림	3-3]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규모의 성별 차이 분포(2020)66
[그림	3-4] 지방 청년들의 서울로의 순이동 규모의 성별 차이 분포(2020)68
[그림	3-5] 지역 단위별 19~34세 청년인구의 성비 구성 추이69
[그림	3-6]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에 대한 성별 유형73
[그림	3-7] 2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지방 간 유입-유출 규모의 성별 차이75
[그림	3-8]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인구증감률77
[그림	3-9] 인구감소 지역들의 연령별 순이동률 구조(형태)78
[그림	3-10] 지역별 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분포(2003)82
[그림	3-11] 지역별 인구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분포(2020)83
[그림	3-12] 인구성장률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88
[그림	3-13] 인구이동의 인구학적 사회적 파급효과(인구이동에 의한 종합적 악순환 구조) …91
[부록	그림 1] 수도권 시군구 지역들의 순이동률 변화105
[부록	그림 2] 연령별 이동률의 지역 내 성별 차이 비교106
[부록	그림 3] 인구위기 지역들의 평균 순이동률 추이110
[부록	그림 4] 인구위기 지역들의 권역별 순이동률 추이111

## **Abstract**

## Current Internal Migration Trend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mographic Strategies in Korea

Project Head: Lee, Sang-lim un-ja

Internal migr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nd the problem of regional population disparity.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migration, in-depth analysis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have not yet been conducted in Korea. The goal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cent internal migration phenomenon in Korea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considering factors such as migration patterns, migrants' characteristics, and region(origin and destin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the total volume of domestic migration in Korea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 2000s, the volume of net migration is increasing as the asymmetry of population migration of the young popul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reases. Migr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s showed a high degree of complexity, revealing internal variations in both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movement and migrants, especially between Seoul and Gyeonggi-do.

Co-Researchers: Choi, insun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patterns of in-

ternal migration, with the net inflow of female youth into the

metropolitan area being higher than that of male youth. It is

not because women move more to the metropolitan area, but

because migration among men is less asymmetric than that

among women. The total number of movements both to and

from the metropolitan area was larger for men than for women.

There appears to be a very high risk that population outflow

from 'depopulation regions' to the metropolitan area or large

cities will cause not only population decline but also overall

structural socioeconomic decline of the regions due to the mi-

gration selec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demographic strategi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at

take migration into account.

Key words: Internal migration, Migration selectivity, Population disparity,

Demographic strategy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최근 우리나라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함.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migration), 인구이동자(migrants), 그리고 지역(origin & destination)이라는 각 각의 접근을 통해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전반적 특성을 다음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함. 인구이동량의 감소와 지역들의 실제 인구변화 정도, 인구 위기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 단계별 연쇄이동 가설 확인, 지방 청년 유출에서의 젠더적 양상,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 양상의 진전, 인구위기 지역 유출입 인구의 특성 분석,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2. 주요 연구 결과

- □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이동의 총규모는 점차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 순이동의 규모, 다시 말해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변화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순이동량의 증가는 인구이동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인구이 동의 지역 간 비대칭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 한 비대칭성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과 20대의 인구이동 에 의해 주도됨.
- □ 수도권 순이동의 약세 경향은 2010년대 중반 지방인구의 증가 시기 이후 최근에 강화되어 재등장함. 2015년경부터 나타난 수도권 집중

- 의 재강화 추세와 이로 인한 <del>총순</del>이동량의 증가는 매우 독특한 양상 임.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동 흐름과 이동의 특성에서 내적 상이성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은 인구 이동의 내적 구성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냄. 또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면, 경기도로의 이동과 서울로의 이동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지방 청년들의 단독 전입으로 이뤄지는 서울로의 유입과는 달리, 가족 단위의 이동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 또한 연령으로 보면,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은 비혼 청년 중심인데, 경기도에는 그들보 다 연령이 더 높은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 □ 국내 인구이동의 양상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의 수도 권으로의 순유입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금까지 이러한 경향은 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부족한 거제 나 창원 등 중화학공업 지역의 특성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순유출의 여초 현상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밝혀짐. 이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지방 산업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의 순이동이 높은 것은 여성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성 이동이 여성에 비해 비대칭성이 약하 기 때문임.

- □ 인구위기도가 높은 지방에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인구이동의 선택성(migration selectivity)으로 인해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총체적, 구조적 쇠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인구유출은 청년, 여성, 고학력 또는 고숙련도, 중산층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 입장에서는 인재의 유출 (brain drain)과 지역의 경제침체 및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위험 성이 매우 클 수 있음.
  - 지방 지역들의 인구위기가 단순히 개별 지역들의 인구 현안이 아 니라 사회적 갈등의 구조화와 사회 연대성 및 사회통합의 위기로 발전될 위험성을 지님.
- □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 경기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인구이동의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인구분 포가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 간의 관계 구조의 변 화는 확인되지 않았음. 지역 간의 격차를 만드는 지역 간의 관계 구 조는 지역의 중층적 구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 문에 지역의 위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거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와의 관계성과도 얽혀 있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임.

##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이 인구이동과 지역 간 관계 구조에 대한 총체적 이해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동성의 차이는 지역의 특성, 개인적 특성이 함께 상호작용한 결과로 정책 대응에서도 지역과 대상과 정책을 일관되게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구이동의 구조가 중층적이기 때문에 정책 대응도 구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방소멸기금 등은 지역의 구체적 현안들에 대한 대응으로 활용하고, 지방시대 위원회 등은 장기적으로 거시적 인 전략 마련과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상이한 위원회들이 통합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의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함.
  -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안정적 인구 현황은 지역적 특성과 정책의 성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에 기반한 것임. 이들지역들이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과도한 개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지역의 인구유출과 인구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음.
  -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인구 책임성'도 중 요하게 인식하여야 함.

주요 용어: 인구이동, 청년 수도권 이동,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제3절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 설명

## <sub>제</sub>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인구이동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은 과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 중심의 복지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상과 관련 현안 대응 중심의 단순 인식을 넘어 인구문제가 발생하는 종합적인 원인 구조의 문제와 그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의 발전과 확대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의 확장과 예산의 확대에 한정된 일원론적 대응과 주장은 차츰 약해지는 반면,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의 문제나 소위 '지방소멸'로 일컬어지는 지방의 지역 인구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새로운 의제로부각되고 있다.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논의의 심화는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더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는 현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같이 추상적인접근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해하여야 하는가라는 전문가적 분석과 해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문제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구문제는 언젠가 벌어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경제적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이 많아지면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지원 확대에 의지하는 안일한 인식보다는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 또는 종합적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응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적 분석과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이동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지역의 인구위기와 지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청 년의 생애과정 이행 단절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현상이 그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은 인구를 잃게 되는 출 발지와 인구가 유입되는 목적지 간의 인구 규모의 증감이라는 제로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동의 선택에 의해 특정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 게 되면서 지역 간 인구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지 역의 경제적 활력과 생활 여건의 문제 등에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최근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이해의 확장은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왜 인구이동 문제가 핵심적 의제로 다뤄져 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해본다. 이를 통해 인구이동 (migration), 인구이동자(migrants), 그리고 지역(origin & destination)이라는 각각의 접근을 통해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이동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이동에 대한 향후 연구와 정책 대응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인구이동 현상의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인구이동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이동 정보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의 전입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국내인 구이동통계는 한 해의 모든 읍면동 단위 전입비·전출 사항이 반영되어 인구이동의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통계에는 과거의 주거지(출발지, 전출지)와 현재의 주거지(목적지, 전입지) 정보와 이동자의 연령,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등 기초적인 개인 자료가 있고, 인구이동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주거지(출발지, 전출지)와 현재의 주거지(목적지, 전입지) 정보가 가구 단위로 제공된다. 그런데 행정통계의 한계로, 포함되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 심층적 분석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인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샘플 자료는 현재 거주지 및 과거 1년 전, 5년 전, 출생지 지역 정보를 활용해 인구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통계는 국내인구이동통계보다는 학력이나 직업활동 상태 등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작성 주기가 5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길고, 두 기준 시점 사이의 이동 정보는 전부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1년 단위로 전체 전출입 자료를 포함하는 국내인구이동 통계처럼 전체 인구이동의 규모 및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한편 4가지 시점의 거주지 정보는 인구이동의 종류(계속이동, 귀환이동 등)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특징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이동의 동향(규모와 방향, 또는 이주자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고, 인구이동률 등의 산

출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주자의 학력 등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이나 특정 이동의 유형(귀환 여부 등)을 분 석하는 데는 인구주택총조사 샘플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이동 규모, 이동률과 순이동률, 인구이동 효과도(MEI) 나 수정된 MEI 등의 지표들을 산출하였는데,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 당되는 각 절에서 산출식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분석 기간은 2000년 이후 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계열적 분석의 필요에 따라 1990년대의 기간을 포 함하기도 한다.

#### 2. 연구 내용과 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의 인구이동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성들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별 총인구이동량 변화, 순이동 규모 변화,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 양상 등을 포함하는 인구이동(migration) 분석이다. 둘째, 지역별·시기별·이동 흐름별 이동인구의 특성과 인구이동 선택성 (migration selectivity)에 따른 인구이동의 구성 차이 등에 대한 인구이동자(migrants)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 인구 선택성에 의한 거주 인구의 특성 변화 등이다. 그러나 인구이동 분석에서는 인구이동과 이동자 그리고 지역을 완전히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내용 구성에서는 각각의 주제가 함께 기술되기도 한다.

인구이동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기술이 부제하고, 인구이동에 대한 세부 영역별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전반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한 일반적 이해와는 차이를 보이는 7개의 주요 주제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기술은 이러한 주요 주제(연구 문제)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인구이동량의 감소와 지역들의 실제 인구변화 정도
- 인구위기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
- 단계별 연쇄이동 가설 확인
- 지방 청년 유출에서의 젠더적 양상
-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 양상의 진전
- 인구위기 지역으로의 유출입 인구 특성 분석
- 인구위기 지역 인구이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제3절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 설명

### 1.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

인구학에서 인구이동(migration)은 이주 혹은 이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조는 출생·사망·이동의 인구학 3요소들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 인구이동은 출생이나 사망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정책이나 경제 상황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도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가장 사회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학 연구에서

사망과 출생은 행위의 발생 자체로 중요한 인구학적 함의를 갖지만, 인구이동은 사건(event)의 발생 여부보다는 방향성(유출과 유입)이나 목적지와 출발지의 지리 정보를 포함하는 인구이동의 흐름(flow) 등 지역 정보와 결합된 특성이 사건의 주요 분석 내용이 된다는 특성도 존재한다(이상림, 2011, p.1-2).

하지만 국내 인구이동(internal migration 또는 domastic migration)은 출생과 사망, 심지어 국제 이동에 비해서도 전문적 연구가 가장 덜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인구이동 연구 영역에서 국내 이동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도 이 분야 전문연구의 이론화와 분석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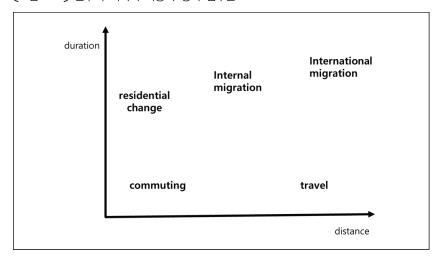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은 우리 사회의 사회발전 및 도시화나 산업화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1960년대의 서울의 인구성장과 집중화, 1970년대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그리고 1980년대이후 경기도의 발전 등 수도권 인구의 급속한 성장과 집중화 과정은 그대로 우리 사회 인구이동의 역사에 투영된다. 최근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소위 '지방소멸'로 불리는 비수도권 지방 지역들의 인구위기 그리고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과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되어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적 경계를 넘는 거주지의 변화라고 정의되는데, 국가별로 행정 경계의 면적이나 사회경제지리 특성이 다르게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이동 양상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는 많은 어려움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시·도와 일본의 현(県) 그리고 미국의 주(state)는 각각의 국가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지만, 이들의 넓이와 사회정치행정적 특성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 사이의거주지 변화와 미국의 동부 대도시에서 서부 또는 하와이로 이동하는 것

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기에는 많은 상이성이 존재한다.

한편, 인구이동은 학술영역에 따라 분석의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사회학에서는 인구이동 자체보다는 이주자(migrants)나 이들의 적응이나 동화 과정을 강조하며, 지리학에서는 인구의 행위자보다는 출발지나 목적지의 특성이나 인구이동의 지리적 결정요인 등 지역이 주요 분석 주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인구학에서는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인구이동(migration)의 규모와 흐름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1-1] 인구의 지리적 이동의 정의 범주들



사실 인구이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정치행정적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리적 이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일정 거리를 넘어 생활공간이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리와 기간이 짧은 통근과 통학, 거주지의 일시적 변경을 의미하는 여행,

같은 지역 내 가까운 거리의 거주지 변경(이사) 등은 일반적으로 인구이 동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일상적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 범주의 인구이동보다 확장된 접근과 분석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통학과 통근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인구학의 인구이동에관한 관점의 분석 방법론이나 이론적 설명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생활인구' 개념이 있다. 생활인구는 지방의 인구위기와 관련하여기존의 정주인구 범주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일정 시간 머무는 인구들로지역의 활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또한정주 인구라는 개념만으로는 풀지 못하는 정책적 현안들에 대한 접근을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인구가갖는 구조적 가정들, 예를 들면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인구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비율(rate) 산출을 위한 모수의 설정 문제또는 데이터의 원천이나 인구 설정의 기준 시간 등에 대한 방법론적 적절성의 문제 등 풀어야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1)

인구이동은 인구이동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의 연구주제로서 이동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고도화시키기보다는 지방의 인구위기나 수도권 인구집중, 또는 지역 청년 문제나 지역 개발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어떤

<sup>1)</sup> 이 절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설명은 이상림(2011)의 워킹페이퍼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문제적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국내 인구이동 연구에서 인구이동 이론은 현상의 분석에 있어 그리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기초적이해 없이 문제를 기술하거나, 인구이동의 일반적 현상을 무시한 채 기술된 현상을 부각시키려는 지수의 개발이 남발되는 모습도 일부 연구에서발견되기도 한다.

인구이동은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상이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와 그 안에 인간의 행위 결정이 반영되는 사회적인 과정, 결정, 경향성 및 결과를 포함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인구이동과 관련된 문제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은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인구이동의 주요 이론과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신고전주의

초기 인구이동의 설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를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보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인구이동이란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취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인구 결정의 총합이 지역 간 인구이동의 흐름을 형성한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임금이 높고, 반대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은 임금이 낮다. 따라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인 구가 이동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두 지역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구이동에서는 국경 간 이동의 비용과 위험이 존재하기때문에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신고전파 경제학은 모든 노동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 노동력과 고급 노동력의 이동방향과 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Massey et al, 1993; 이상림, 2011 재인용).

이러한 인구이동에 대한 초기 경제학적 설명은 인구이동의 원인을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평균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며, 지역 간의 임금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으로 고임금 지역에서 저임금 지역으로의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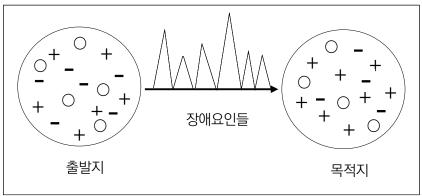
#### 나. Push and Pull 모델

인구이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모델은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에 대한 접근으로 Lee(1966)의 'Push and Pull' 모델을 적용한 설명이 있다. 'Push and Pull' 모델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에만 주목하는 단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여 인구이동을 설명하려 한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상림, 2009). 이 모델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의 인구 배출요인(pushing factor)과 다른 지역의 인구 흡인요인 (pulling factor)이 개인의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주거리, 이주

비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법률적 장벽 같은 인구이동의 장애 요인들도함께 고려된다([그림 1-2] 참조). 이 모델은 인구이동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개인들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지역적 요인에 상이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인구이동 흐름의 선택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인구이동의 선택성은 특정 지역에서 유출되는 이동자나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자들이 갖는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 간 인구이동의 패턴과 그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되어,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2] Lee의 Push and Pull 모델



자료: Lee. (1966). A Theory of Migration.

이러한 지역 차원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이주 인구의 유입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인구의 유입을 단순히 한국의 발전된 경제수준 등과 같이 국내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과 우리나

라의 어떤 특성들이 배출요인(pushing factor)이나 흡입요인(pulling factor)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인구이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향후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임금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업률, 경제상황, 가족문화, 양성평등성, 인구구조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송출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만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자들을 일반화한 단순한 설명만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자가 속한 국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띠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송출국이나 유입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송출국이나 유입국의 인구 유출 및 유입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이동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이주자들의 배경, 목적, 그리고 이주 동기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다. 신경제학적 설명

개인의 합리성에 기반한 신고전주의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은 신경제학(new economics)의 접근에서도 나타난다. 인구이동에 관한 설명에서 신경제학이 신고전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신고전주의는 합리적 개개인이라는 전제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하였지만 신경제학에서는 인구이동 결정에 대한 행위 단위를 다른 사람들(대표적으로 가족)로 확대하여 인구이동을 바라본다는 것이다(Stark 1991, Taylor,

Martin, and Fix 1997). 가족 단위의 인구이동 설명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전략 행위를 포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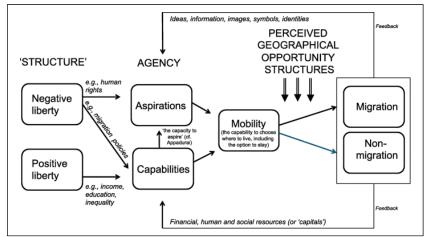
인간의 경제적 행위라는 것은 개개인이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여 합리 적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뿐 아니라, 인구이동을 통한 가족의 위험분산, 가족 자원의 계획된 분배, 노동시장 외의 다른 시 장(예를 들어 재배 작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장래의 농산물 시장)에서 의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위험도를 낮추는 것 등 가족 단위에서 이동을 활 용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전략적 행위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의 불법 월경 등 히스패닉들의 미국 유입사례에서 이들의 이동 전략은 개 인의 월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내주는 송금(remittance) 을 통해 가족들이 원거주지역에서 꾸려가는 농업이나 다른 지역의 취업 등 가족 공동의 경제활동도 이민 전략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전략은 본 거주지의 빈곤이라는 장애요인이나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가족 구성원 일부의 미국 이주를 통해 완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제수 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가족들의 가용한 자원이 매우 한정되고, 한 번의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 족 구성원 일부의 이민이 확장적 경제전략이나 위험 분산 전략으로 활용 된다.

이러한 신경제학적 접근은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흐르는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동행위를 개인 단위에서 현실화되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장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라. 자원이론

이동은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동의 선택 과정에는 다양한 구조들이 영향을 미치게된다. 예를 들어 Van Hear(2014)는 이주와 그 결과는 이동을 하려는 자원에 의해 형성되며, 그러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Chiswick(2000)은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지역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공급 측면에서 출발지 이동자들의 특성을 정량적 방법으로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이민자(특히 경제적 이민자)는 '평균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에 계속 머물기로 선택한 유사한 이들보다 더 유능하고, 야심적이고, 적극적이며, 기업가적이며,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p.3). 즉, 이주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결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이동에 대한 구조적 결정요인으로서 자원이 강조되는데,이 자원에는 개인의 계층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제도적 맥락을함께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이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De Haas(2021)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3] 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구조들

자료: De Haas. (2021). A theory of migration: the aspirations-capabilities framework. p.25.

#### 마. 생애과정과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개인의 생애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연령에 따라 이동성이 달라지는데, 초기 성인기와 노년기 그리고 성인 이전 아동기에서 이동률의 변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초기 성인기에는 고등교육 진학, 취업,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으로 인구이동성이 매우 높아지며, 또한 결혼, 출산, 양육, 직장 이직, 승진 등의 과정에서도 거주지의 변경이 전 생애과정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생애 역시 노후생활이나 신체 약화에 따른 돌봄 등의 이유로 인해 이동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인구이동의 발생은 연령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며, 생애과정은 이동률뿐 아니라 이동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관찰되기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과 생애과정에 따른 인구이동의 경향성들은 매우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국의 인구지리학자 Tyrrell과

Kraftl(2018)은 생애과정에 따른 이동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1-1〉 영국의 생애단계와 이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화

개인의 인생 과정의 '단계'	가능한 이동 사건 (event)	이동 경향	장소와 거리
유아기 가족 이주 또는 주거지 변동		노으	도시에서 교외나 농촌으로, 또는 더 큰 주거지나 '더 나은' 동네로
아동기	주거지 변동	학령기에는 낮음	같은 지역 내에서 더 큰 주택 또는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짧은 거리
초기 성인기	주거지 변동	낮음	같은 지역 내에서 더 큰 주거지 또는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짧은 거리
미혼 성인기	친가 이주, 학생 이주, 취업 이주, 동거 이주	노이	대학 도시, 도시 지역 및/또는 잉글랜드 남동부(수도권), '더 나쁜 주거환경'
결혼 성인기	가족구성을 위한 이주, 취업을 위한 이주, 부모로부터의 독립	중간	잉글랜드 남동부(수도권)의 도시 지역
양육기	가족 이동, 이혼(결합해소)	낮음	유아기와 아동기 참조(위)
초기 노년기	은퇴 전 또는 은퇴 이주	낮음	도시 또는 교외에서 준농촌 또는 농촌까지, 성인 자녀 및 손자와의 근접성
중기 노년기 (widow/ widoerhood)	성인 자녀 인근으로의 이동	낮음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반 농촌 또는 농촌 지역
후기 노년기 (geriatric dependency)	요양시설로 이주	중간	교외 또는 준농촌으로

자료: Tyrrell & Kraftl. (2018). Lifecourse and internal migration, p.16.



# 제2장

## 인구이동의 변화와 지역

제1절 전국 이동성의 특성과 변화 제2절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의 변화 제3절 수도권의 인구이동 제4절 지방의 인구이동 제5절 연쇄이동의 검증

# 제 2 장 인구이동의 변화와 지역

## 제1절 전국 이동성의 특성과 변화

#### 1. 총이동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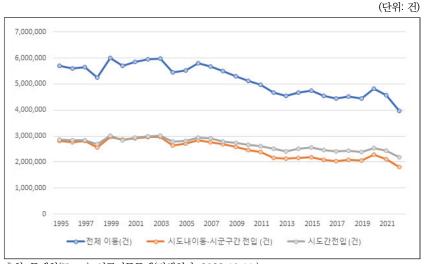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인구이동의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선진국들의 국내 이동에서는 총이동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Champion, Cooke, Shuttleworth, 2018). 그러나 세계적 범주에서는 세계화, 이동방법의 발달, 그리고 선진국들의 노동력 확보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구이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이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고도 불린다(De Haas, Castles, & Miller, 2019). 이는 국내 인구이동과 세계적 수준의 국제 인구이동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경향의차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성의 경향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확장과 다원성의 증가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서 더 이상 지리적 이동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고,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동성이 낮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전체적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통신기술 및 여행 방법의 발전 역시 거주지의 이동 없이도 다양한 기회를 찾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는 없지만, 최근 통계청의 시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이동 가정을 보면 국내 이동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 간 출발지-목적지(O.D.)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오진호(2021)의 연구에서도 인구이동의 총량이 낮아진다는 전제로 국내 순이동자 수를 산출할 때는 고정전이확률 모형보다는 변동전이확률(transition trasition probability) 모형 적용이 더 합리적임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그는 시도별 전입, 전출 전이확률에 근거한시도별 순이동자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95년 이후 인구이동 자료를 살펴보면,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인구이동의 총량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도 간의이동이나 시도 내, 시군구 간의 이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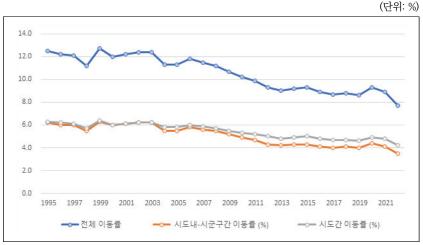
[그림 2-1] 연도별 전국 국내 이동의 전체 규모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지속적인 감소 경향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인구이동의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인구이동 감소 사례들은 주로 경제위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위기의 여파로 주택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주택 거래량의 감소로 인구이동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 이후 주택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인구이동이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 소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 이후에 인구이동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리고 최근 2020년 이후의 인구이동의 급격한 하락 역시 부동산주택시장의 침체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2)

[그림 2-2] 연도별 전국 이동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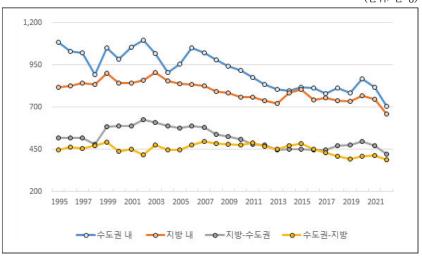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sup>2)</sup> 최근 2021~2022년의 예외적인 인구이동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경기 경향 속에서 예 외적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20년까지를 인구이동 을 분석하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동성의 감소 추세는 이동 건수가 아닌 인구 규모를 반영한 인구이동률에서도 동일하게 추세적 하락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인구이동의 감소가 인구 규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동의 총량 자체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 [그림 2-3] 권역별 총인구이동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한편 권역 구분에 따라 인구이동의 방향성에 따라 이동의 추세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가장 많은 인구이동 건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시도 간 이동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6년 이후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인다. 지방 내 시도 간 이동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유일하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은 2016년부터 가장 선명한 감소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인구

이동의 총량 규모의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안정적으로 하강 국면을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0년대 인구이동량의 감소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을 제 외한 다른 이동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수도권 내 이동의 이동 량 감소가 전체 이동 규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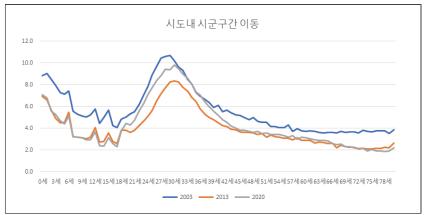
## 2. 인구이동의 연령 분포

인구이동에서 주목할 점은 앞에서 생애과정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기술한 바와 같이, 인구이동률로 나타나는 인구이동성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에는 이동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이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후 일정한 연령이 지나 가족 형성기와 출산기에 이르면 이동률은 최고점을 보이다가 생애과정이 진전되면서 차차 이동률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 패턴은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기의 이동률은 초기에는 부모를 따라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차차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학교 진학을 앞둔 6세, 12세, 15세에 일시적으로 이동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현재 시군구 간 이동이나 시도 간 이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2003년 시도 간 인구이동에서는 중학교 이상 진학을 앞둔 10대 연령대에서 이동률이 상승이 없었거나 매우 약하게 존재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옮기는 교육 관련 이동의 경향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4] 연령별 시군구 간 이동률(2003, 201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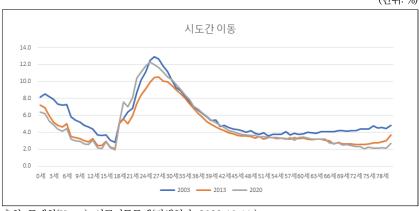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 [그림 2-5] 연령별 시도 간 이동률(2003, 2013,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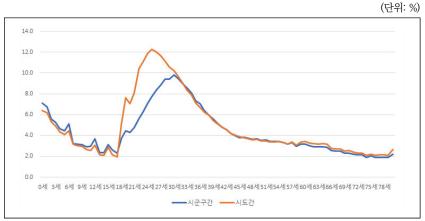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또한 연령별 분포 추이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더 멀수록 (또는 정치행정 단위가 클수록) 이동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도 간 이동이 시군

구 간 이동보다 이동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이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도-광역시 간에는 지리적 거리가길지 않아 거리의 제약이 크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주택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 간의 높은 이동률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곽의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연령별 시군구 간·시도 간 이동률 비교(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시군구 간 이동과 시도 간 이동에서 발견되는 다른 특성은 시도 간의 이주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집중되면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진학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군구 간 이동은 20대 전반에 걸쳐 연령에 따른 연령별 이동률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덜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인구이동의 정점 연령 역시 시도 간 이동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성인기의 시도 간 인구이동은 청년이 단독으로 행하는 1인 이동의 비율, 즉 독립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이 집중되면서 이동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군구 간 이동은 부모를 따라 이동하거나, 혼인 이후 부부 또는 자녀와 부부가 함께 이동하는 가족이동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늦은 시점(연령)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다.

## 제2절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의 변화

## 1.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이동의 비대칭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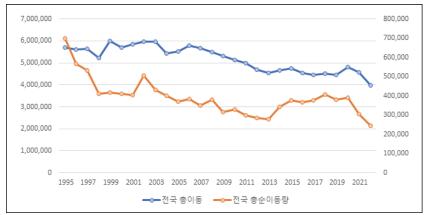
인구의 이동은 그 자체로 출발지(origin)에서는 인구의 감소를, 목적지 (destination)에서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지역에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유출되는 인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어느 지역이든 출발지가 되는 동시에 목적지가 된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더 많으면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순유출이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순유입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인구가 더 많이 유출 또는 유입되었는가에 따라 지역의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의 구성과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구이동에 따라 지역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인구이동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나타난 인구이동의 효과성의 총체적 규모는 인구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순이동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순이동 규모는 총이동 규모와 상관성을 보이는데, 인구이동의 총량이 증가하면 순이동의 규모도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이동 동향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총량은 200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이동의 결과인 순이동의 규모는 2015년부터,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구이동이 크게 감소한, 2021년 이전까지 오히려증가하였다는 점이다.

## [그림 2-7] 전국 총순이동량 변화 추이

(단위: 건)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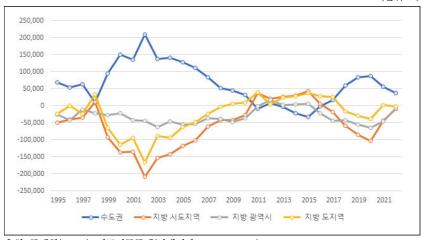
우선 우리나라 전체에 나타난 인구이동의 효과, 다시 말해 전국 시군구에 걸쳐 나타난 총순이동 규모는 지역별 순이동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의 절대값의 합은 0이 되고, 또한 두 지역 간의 인구교환 관계에서 한 지역의 순유입은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규모의 순유출이된다. 그러므로 인구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전체 순이동 규모는 각 지역에서 나타난 순이동의 절대값 총합의 1/2로 계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순이동 규모를 같은 기간 총인구이동량과 비교해보면 [그림 2-7]로 나타낼 수 있는데, 총이동 규모의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2013년경부터, 부동산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구이동이 예외적으로 급락한, 2021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총순이동 규모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그림 2-8] 지역 권역별 순이동량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이러한 총인구이동과 전체 순이동량과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권역별 인구이동의 범주를 나누어 각각의 인구이동 흐름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수도권 지역을 보면,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의 순이동은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급기야 2011년부터 2016년까지(2012년 제외)는 총유출이 총유입보다 많은 인구의 순유출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제나 수도권에서는 지방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인구의 순유출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지방 시도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순이동과 역으로 대칭되는 순이동 그림이 나타나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인구의 지방순유입이 일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종시를 포함한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의 순이동 동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참고로 광역시지역과 도 지역의 순이동의 합이 지방의 순이동이 된다. 지방 광역시 전체로는 오랫동안 인구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순유출의 수준은 도 지역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07년경부터 최근 2021년에 이르기까지 지방 도 지역들의 전체 순유출 수준이 지방 광역시 지역들보다 적거나, 심지어 수도권 순유출이 일어난 기간에는 도 지역들에서는 인구의순유입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이 시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유출·순유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순이동 수준이 이에 근접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인구의 균형적 교환이 이루어진 시기라는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의 수도권 인구의 유출과 지방인구의 순유입으로 인한 지방인구의 증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건설 등 국 토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로만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지방의 순유출 수준을 살펴보면, 정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지방의 순유출 수준이 낮아지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완화되는 거시적 경향이 존 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2010년대 후반에 반대로 역전되는데, 수도권에서는 다시 순유입이,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순유출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은 인구이동의 총량이 감소하면서 순이동 규모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순이동 규모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이동의 규모는 2014년 부터 증가하였지만, 전체 순이동 규모의 확대는 초기에는 지방으로의 순

유입에 의해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순유출 증가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는 지방 도 지역의 인구가 지방 광역시 지역에 순유입됨에 따라, 수도권 순유입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지방인구가 수도 권으로 순유입됨에 따라 전체 순이동량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그림 2-9] 20~29세 청년집단의 총인구이동량과 총순이동량

(단위: 건) 2,000,000 250.000 1,800,000 1,600,000 200,000 1,400,000 1 200 000 150,000 1,000,000 800.000 100.000 600.000 400,000 50,000 200 00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 20대 총이동 → 20대 총순이동량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전체 순인구이동 규모의 변화를 연령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순이동의 증가가 바로 20대 청년의 인구이동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있다. 3) 이들은 전체 순이동량뿐만 아니라 총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한 인

<sup>3) 2010</sup>년대 중반 들어 지방의 순유입이 순유출로 되돌아간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 권으로의 순유출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합계출산율이 경제위기나 사회·국가의 안보적 위기 없이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인구 현상(특히 청년들의 인구동태)에서는 유배우출산율의 하락 등 전에 없던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2010년대 인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이 시기부터 우리 사회청년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구집단으로, 이들의 이동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인구이동의 감소기 직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20대의 인구이동 경향은 전체 인구의 총순이 동률이나 총순이동 규모 추이와 직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난다.

[그림 2-10] 전체 순이동률과 20대 순이동률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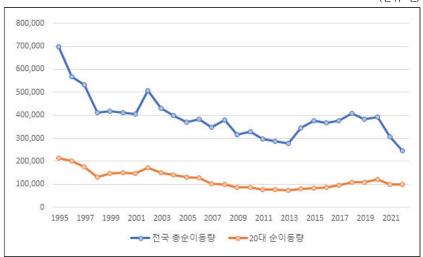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림 2-11] 전체 순이동량과 20대 순이동량 추이 비교

(단위: 건)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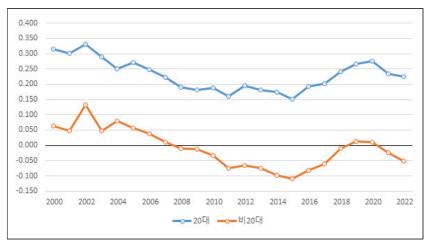
인구이동이 지역 인구 재배치에 미친 영향을 총인구이동 규모와 연결한 효과도로 제시하는 지표인 MEI를 통해서 보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경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인구이동 효과도라고 불리는 MEI는 순이동과 매우 비슷한 지표이지만, 분모가 지역의 인구 규모가 아닌 총이동 건수라는 점이 다르다. 이 지표는 '소인구문제' 등 지역의 인구 규모에의해 영향을 받는 순이동률에 비해, 인구이동(migration) 자체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상일, 이소영 2023). 이수치가 더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이동 또는 전체 인구이동에서 지역 간 인구교환의 비대칭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EI = 100\sum_{i}|D_{i}-O_{i}|/\sum_{i}(D_{i}+O_{i})$$
 (식 1)

〈식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래 인구이동 유효도는 순이동의 절대 값을 사용하지만, 이 경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동 흐름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절대값 과 순이동값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앞의 분석들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총이동 량의 감소 속에서 나타난 전체 순이동량의 증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 구이동과 20대 청년인구의 인구이동에서의 비대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20대 청년인구와 비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대한 MEI를 비교해 보면 인구이동의 비대칭성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나타난 청년집단과 비청년집단에서의 인구이동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MEI 추이 그래프([그림 2-12] 참조)에서는 비20대 인구의 MEI가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추이는 영향의 방향성(감소와 증가)를 제시하면서 나타난 착시효과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실제 지표는 음(-)의 값에서 0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효과도는 사실 0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지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5년 이후 비청년기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의 균형적 교환이 이뤄지지만,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의 비대칭성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12] 20대 청년과 전체 인구의 인구이동 효과도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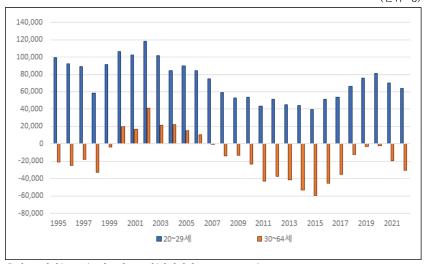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총이동량의 감소 속에서 순이동의 증가는, 결국 인구이동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성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20대 청년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 지방의 인구위기 및 사회경제적 활력의 감소, 수도권 위주의 사회발전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의 순이동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경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던 거시적 추세 속에서, 2015년경부터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갑자기 비대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해석되며, 인구이동 추이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청년의 인식과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림 2-13] 연령집단별 수도권 순이동 규모 추이

(단위: 명)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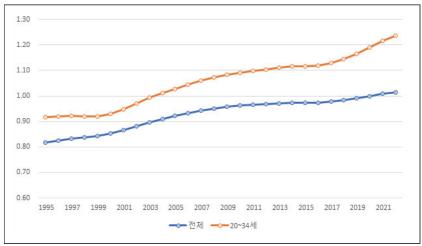
다음으로 20대 청년층과 그 이상의 성인집단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비교해 보면, 그 패턴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 청년인구의 높은 수준의 수도권 집중(순이동)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지만, 순이동의 수준은 오히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림 2-13]에서 확인된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증가도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 지방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

20대 이후 연령의 인구이동은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유 출의 양상을 보였으며, 순유출의 증가 경향도 20대의 순이동 감소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2015년 이후로는 순유출 추세가 약해지기도 하였다. 이시기 이후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비청년기 인구의 순유출 감소도 거시적 수도권 인구이동의 맥락에서 함 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되다. 하지만 비청년기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감소 추세도 2021년 이후 인구이동 감소기에 들어 서는 다시 순유출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그림 2-14] 연령집단별 지방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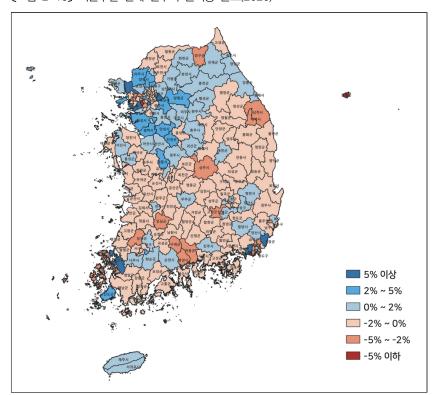
이러한 20대 청년들의 수도권 순이동 증가는 결과적으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지역의 인구구성 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구성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청년의 순유입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그 증가세 가 2016년경부터 더 가팔라지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수도권 인구집중 은 지방 청년의 유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 청년정책의 효과 성을 높인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지역별 순이동 분포

인구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의 감소 경향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지역들의 순이동률 분포 의 차이로 나타난다.

2020년 시군구 지역별 순이동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순이동률이음의 값을 갖는 순유출 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한 229개 지역 중 152개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명시(-6.0%), 울릉군(-5.6%), 임실군(-4.8%), 광양시(-3.4%), 부평구(-3.3%)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인구위기 지역들뿐 아니라, 시와 심지어 수도권 지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수도권 증가와 지방 인구감소' 구조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순유출을 보인 곳은 35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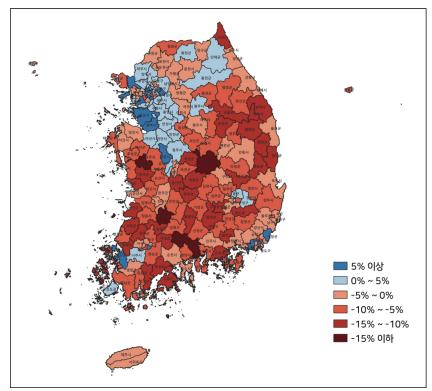
그런데 163개 지방 지역들 중 117개 이르는 지방 지역들에서는 인구의 순유출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순유입률이가장 높은 10개 지역들 중에서 과천시(8.0%), 김포시(7.8%), 하남시(7.2%), 인천 연수구(5.3%), 서울 강동구(5.2%), 시흥시(5.2%) 6개 지역이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림 2-15] 시군구별 전체 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또한 지방 지역들 중에서 순유입이 나타난 지역은 청주시, 홍천군, 원주시, 천안시, 그리고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조정과 관련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과 충청 지역들이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그 외 지방의도 지역들 범주에서 순유입이 나타난 지역은 전주시, 무주군,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진도군, 영천시, 경산시, 예천군,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15곳에 그쳤고, 이들의 순유입률은 0.5%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2-16] 시군구별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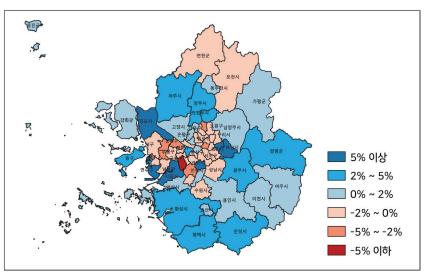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반면 시군구 지역들의 순이동 분포의 분석 대상을 20대 청년인구로 축소시키면, 순이동 분포는 앞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순이동률의 수준이나 수도권의 순유입, 그리고 지방의 순유출은 편차가 매우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청년 순유입이 두드러졌는데, 서울에서 순유출이 일어난 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5개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거나 낮은 지역들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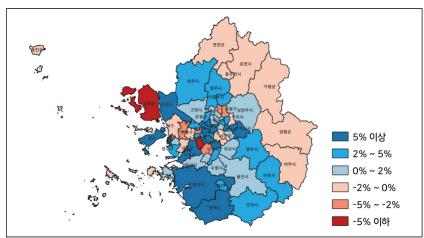
될 수 있는 특징을 보여, 서울 지역의 청년 유입에서마저도 원인과 양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 지역들의 순유출은 17개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는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등 도농복합지역들과 산업공단 등이 있는 지역들 및 구도심 쇠퇴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광명시와 구리시 등 전체 인구가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주거 중심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의 자기 특성과 인근 지역의 주택 상 황 등 복잡한 수도권 내 지역 간의 관계도 인구이동의 양상에 함께 영향 을 미치는 복잡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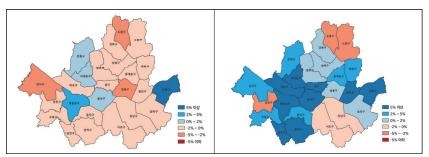
[그림 2-17] 수도권 시군구별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림 2-18] 수도권 시군구별 전체 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림 2-19] 서울시 구별 전체 인구와 20대 청년인구의 순이동 분포(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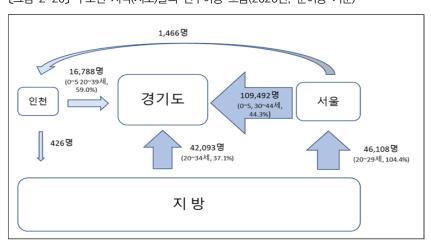
## 제3절 수도권의 인구이동

우리 사회의 인구이동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이동의 총량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수도권 내 인구이동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이 지역들이 단순히 지방의 인구를 받아들이는 순유입지 만의 인구이동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인구이동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구이동 흐름의 다양성은 인구이동 을 구성하는 이동자(사람)들의 특성의 다양성을 함께 의미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유입과 지방에서의 유입이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서울로의 유입이 가장 큰 유입 흐름을 형성한다. 하지만 서울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전국의 시도들 중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서울의 인구감소는 인구의 순유출에 기인하는데, 특히 경기도로의 유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한다.

경기도에도 역시 유의미한 규모의 지방인구 유입이 형성된다. 2020년 의 경우 지방에서 경기도로 순유입된 규모는 서울의 지방인구 순유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이룬다. 그 외에도 수도권은 서울에서 인천시로의 순유입이 나타나는데,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인천의 규모가 수도권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0] 수도권 지역(시도)들의 인구이동 흐름(2020년, 순이동 기준)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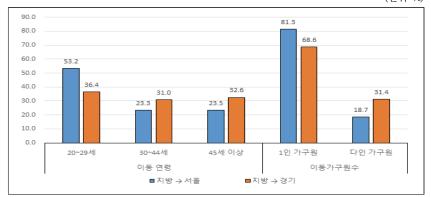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 흐름에 따라 이동 인구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서울로의 유입은 절대 다수가 20대의 젊은 청년인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유입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세대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많은 서울 신혼부부가 경기도로 이주하거나 경기도에서 혼인 등록을 하는 것은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서울의 낮은 출산율을 형성하게 하는 수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서울은 지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다시 많은 자녀 양육기 청년들이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결혼 및 양육 시기가 되면 경기도로 이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로의 유입인구와 서울에서 경기로의 유출인구가 서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들, 특히 지방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학업을 마치고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주변화된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혼인이나 출산의 생애과정 이행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유입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이나 서울 적응 양태에 대한 이해 없이 인구의 흐름만으로 그 내적 구성을 단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인구이동과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21] 수도권 내 인구이동의 목적지별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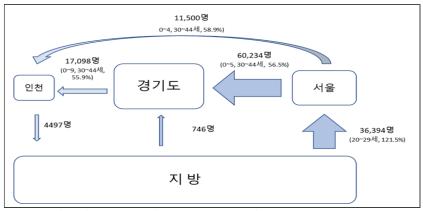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또한 지방으로부터의 유입인구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의 유입인 구의 구성에서 다소의 차이가 확인된다. 서울 유입은 20대 청년의 구성 집중이 확연하게 높지만, 경기도 유입인구에서는 젊은 청년인구의 유입 비율이 낮아, 비교적 넓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경기도로 유입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수도권 지역(시도)들의 인구이동 흐름(2022년, 순이동 기준)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한편 전체적으로 인구이동의 규모가 낮아졌던 2022년의 이동 흐름을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일부의 변화도 발견된다. 우선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 규모가 크게 낮아졌는데,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던 서울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인구이동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인천과 경기에서의 순이동의 방향성이 바뀐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로의 유입이 상당 부분 가족 단위의 가족이동으로 이뤄지고, 양육 및 주거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나 전세값 상승 등 주택시장의 변동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지방 → 서울의 인구유입과 서울 → 경기의 인구유출은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규모, 방향성, 그리고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흐름이 수도권의 대표적 인구이동의 흐름으로 고착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제4절 지방의 인구이동

수도권 내 인구이동의 흐름이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 것처럼 지방 다른 지역들의 인구이동 역시 '수도권으로의 유입'만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수도권 지방 지역들의 인구이동 구성은 지역의 인구유출 정도나 방향성 등 인구학적 상황과 인근 다른 지역의 인구이동 양상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시도 지역들의 인구이동 흐름들 중 특징적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지방의 인구이동 흐름 구성(순이동)

(단위: %)

_							
구	분 	순이동 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경북권
2020	부산	-13,980	-13,937	-1,269	-258	217	1,591
	대구	-16,467	-13,342	-2,121	-157	618	-734
	광주	-5,753	-7,711	-1,119	3,051	109	111
	대전	-3,926	-8,055	-345	1,382	1,277	1,805
	울산	-13,418	-6,128	-1,107	-107	-3,081	-2,477
	세종	13,025	1,057	8,822	1,210	861	914
	강원	5,611	2,721	165	442	1,017	1,186
	충북	3,462	-598	410	765	1,303	1,927
	충남	2,384	-3,904	-65	1,999	2,242	2,031
	전북	-7,919	-7,224	-1,687	425	445	232
	전남	-9,449	-5,570	-1,340	-3,476	839	164
	경북	-16,432	-13,966	-3,642	-350	1,722	734
	경남	-16,330	-13,522	-2,446	-1,028	2,864	-1,454
	제주	3,385	2,404	89	-72	569	475
2022	부산	-13,191	-13,000	-1,456	-374	1,416	628
	대구	-11,179	-10,190	-1,655	-80	1,306	-315
	광주	-7,460	-6,170	-1,241	119	78	-83
	대전	622	-3,356	-489	1,542	1,316	1,465
	울산	-9,417	-5,273	-1,228	-116	-1,089	-1,513
	세종	10,128	1,772	5,827	740	884	670
	강원	7,650	6,720	-565	240	908	348
	충북	6,733	3,691	-674	779	1,792	1,201
	충남	14,991	7,957	1,163	1,765	2,396	1,473
	전북	-4,739	-3,003	-1,708	-377	369	12
	전남	-163	-833	-1,137	258	1,206	158
	경북	-7,336	-6,780	-2,484	-7	1,933	315
	경남	-18,153	-10,787	-2,820	-1,163	-327	-2,354
	제주	3,227	2,609	240	-230	397	21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부산, 대구, 광주 등 몇몇 광역시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인구유출이 두 드러지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수준이 매우 높은데, 광주를 제외한 부산과 대구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전체 유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의 분석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청년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들은 대도시 지역임에도 청년 유출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들은 인접한 권역 내 지역에서만 제한된 인구만이 순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방의 광역시들이 주변 도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은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산, 대구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인근 지역 인구의 순유입만이 이뤄진다. 반면 광주는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전라권, 특히 전남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규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 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 등 인근 지역 및 대구, 경북, 그리고 심지어 충청권과 호남권으로까지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이러한 순유출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울산의 지속적 인구유출은 영남권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영남권 전체의 인구유출 위기로 발전할 위험 성마저 안고 있다.

충청권 지역 중 세종시는 전체 순유입의 50% 이상, 심지어는 70% 가까운 수준의 인구를 인근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증가가 곧바로 수도권 인구 흡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의미로나마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큰 규모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타지역의 지방인구가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이 보여주는 순이동 수준보다 실제 인구의 유동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안정성, 1인 가구 구성, 혼인 및 출산 등 청년의 생애과정과 그와 연관된 사회적 인프라, 지역의 문화 유지, 산업 인력 공급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는 안정적 인구이동 양상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인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전북은 인구유출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시켜줄 인근 지역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 도시(anchor city)가 부재함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전라북도의 경제나 산업이 광주와 전남 등과 인구이동의 연계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전북의 높은 인구유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전남이나 광주로의 인구이동이 낮고, 심지어 세종이나 대전 등 충청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 제5절 연쇄이동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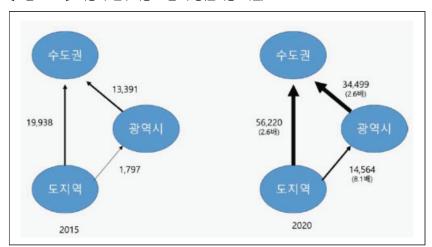
인구이동 현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동이 특정 목적지로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소도시-대도시와 같은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 존재한다. 특히 인구센서스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뿐만 아니

라,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등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인구이동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연쇄이동의 가정은 실증 자료로 분석되기도 하였다(DaVanzo, 1983; Kiker and Traynham, 1976; Miller, 1977).

인구이동의 반복성에 따라 인구이동은 처음 이동을 하는 최초이동 (primary migration),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계속이동(repeat migration), 그리고 과거 머물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상림, 2009). 실제로 최진호(2002)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인구이동에서 귀환이동과 계속 이동 그리고 출생지를 떠난 이동 이후 한 곳에 머무는 정착이동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정섭과 김성환(2014)은 전라북도 지역의 단계이동을 다른 인구동태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김재홍과 도수관(2020)은 샘플조사 자료인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GOMS)' 자료를 기반으로 대졸자들의 귀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연쇄이동 가설을 전체 인구수준에서 확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연쇄적 단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도 지역, 광역시 지역, 수도권으로 구분 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면, 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직접 이주가 광역시에서의 이주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도 지역의 인구 규모(경기 제외)가 광역시에 비해 1.5배 정도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광역시 지역과 비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인구유출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이 상당히 완화되었던 2015년은 물론이고, 이동성이다시 높아진 2020년에도 그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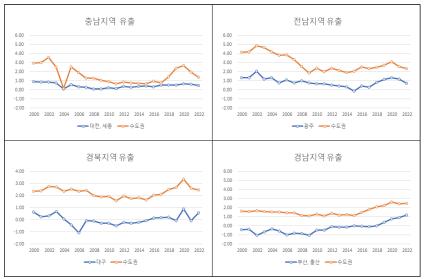
[그림 2-23] 지방의 인구이동 흐름 구성(순이동 기준)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러나 이상의 그림 설명은 모든 도 지역의 모든 광역시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쇄이동 여부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도 지역을 인접한 광역시들로만 한정하여 인구이동의 흐름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충남지역은 충남대전과 세종, 전남지역은 전남-광주, 경북지역은 경북-대구, 마지막으로 경남지역은 경남-부산과 울산으로 그룹 지어 지방 도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림 2-24] 광역시 인근 지역의 인구유출 목적지 비교(수도권과 인근 광역시)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분석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인근 광역시로의 유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대도시가 앵커 도시로 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쇄이동을 설명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구주택총 조사에 나와 있는 현재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그리고 태 어난 곳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분석해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연쇄이동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의가 지나치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연쇄이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매우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단지,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연쇄이동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역설적으로 비수도권 출신 대졸자의 귀환이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김재홍과 도수관의 연구(2020)에서도 확인된다.

연쇄이동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체 인구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 인구이동 현상과 견주어 볼 때 나타나는, 센서스 자료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이동률 수준에서 청년기에 인구이동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연쇄이동 관점의 분석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 인구이동에 대한 연쇄이동 등 계속성 분석은 주로 인구센서스에서 일정 기간을 갖는 거주지 정보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한정된 정보들로 인해 특정 시기에 이뤄지는 계속이동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외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양육기에 주거지 변동으로 인해 영유아기의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출생지역에 대한 정보도 활용성을 상실한다고 볼수 있다. 연쇄이동을 위한 인구이동의 반복성과 계속성에 관한 연구는 인구이동 영역에서 자주 분석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에 이러한 가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 제3장

## 인구이동의 선택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 제2절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 제3절 인구위기 지역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 제 **3** 장 인구이동의 선택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제1절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

## 1. 순이동의 성별 차이와 그 결과

앞의 push-pull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이동은 한 지역에서 모든 이들에게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 특성들이 다 양하게 결합되면서 인구이동의 선택성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인구이동에 는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이 개인에게 다른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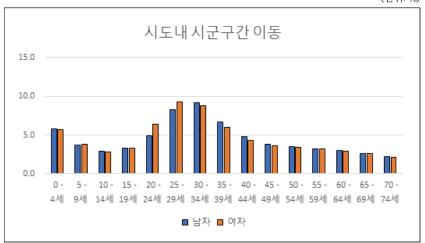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기의 인구이동 중에서도 성별은 지역의 경제·산 업·생활·문화 상황에 따라 확연한 이동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애과정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거주지역에서의 환경의 유·불리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는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의 젠더적 불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연구의 영역에서의 인구이동 성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그 영역이 갖는 인구 및 지방소멸 등 관련 현안에 태도나 인구학적 이해 수준 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이동성의 성별 차이는 인구이동성(률)의 차이와 함께, 인구이동 방향성, 연령 분포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인구이동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성들은 군 병역의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게 대학 졸업을 맞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이 더 늦어질 수 있기 때 문일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이동률의 차이는 시도 간 이동과 시군구 간 이동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성별에 따라 인구이동의 연령 분포 형태와 이동성의 수준, 그리고 이동성의 방향(거리)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특히 시도 간 인구이동에서 여성의 순이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 성의 수도권 전출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연령별 이동률의 성별 차이(시도 내 시군구 간 순이동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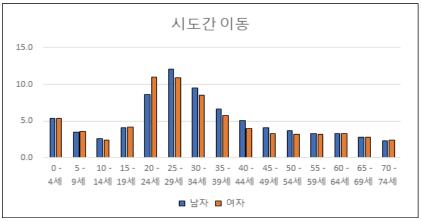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림 3-2] 연령별 이동률의 성별 차이(시도 간 순이동률,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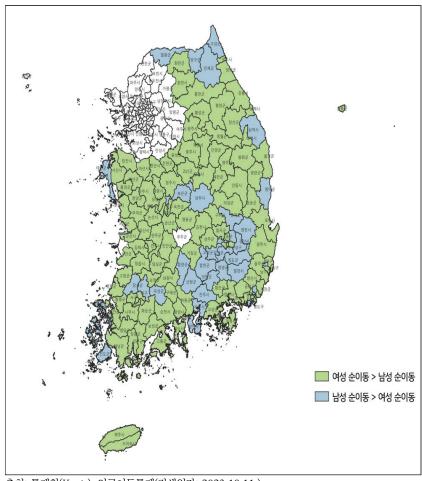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인구이동의 이동성과 목적지 흐름의 차이는 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결국 지방에서 청년인구 성비의 차이를 만든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연령대(19~34세) 전국 성비는 109.8로 심각한 남초 현상을 보인다. 이는 과거 1980, 1990년대 태아 성별 감별 초음파 검진을 통해 많은 인공임신 중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고, 성별 차이가 커지는 2020년에 들어 수도권의 청년 성비는 104.3으로 정상 범주에 들어오고, 서울만으로 따로 구분해 청년 성비를 보면 오히려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은 96.8의 성비를 보인다.

이와 같이 청년 이동에서 여성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은 지 방의 산업구조와 연관되는데, 여성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여성의 평생직장으로 적합한 서비스 직종의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제조업 중심의 지방에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3-3]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규모의 성별 차이 분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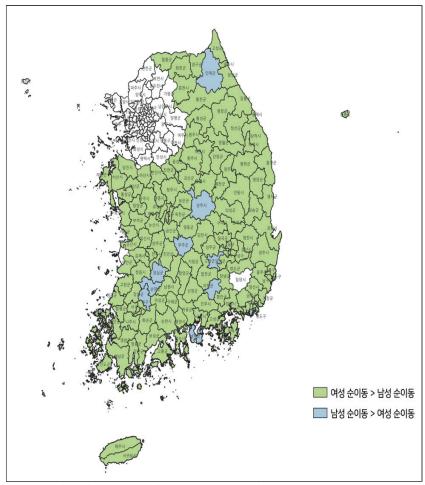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이런 청년인구 유출의 여초 현상은 중화학공업 지역의 문제로 부각되었으나(양승훈, 2019),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중화학 공업지역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지방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시군구 인구이동에서 여성 20대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순유출) 규모가 남성보다 큰 경우는 총 163개지방 시군구 지역들 가운데서 123개에 이르렀다. 이들 지역에는 울산시 북구, 충남 아산과 서산,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거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화학공업 도시들뿐만 아니라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장수, 전남 고흥, 경북 문경, 경남 하동 등 해당 도 지역의대표적 인구감소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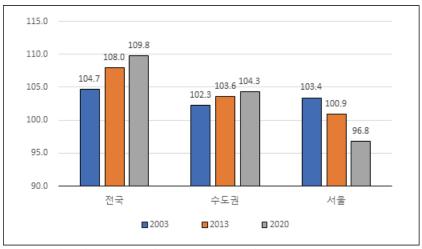
한편 남성 청년의 순유출이 더 많은 지역들은 강원 철원과 양구 등 군지역들을 포함하고, 충청권에서는 충북 보은과 충남 태안 각각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전남에서는 담양 등 4곳으로 도내 시군구 숫자에 비해 매우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에서는 한 곳도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수도권 순유출의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대구·경북·부산·경남 영남권에서는 남초 순유출의 지역들이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청년 유출의 목적지를 수도권이 아닌 서울로 더 좁히면 이러한 지방 청년 수도권 유출의 여초 현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울 유출 인구 중에서 여성의 순이동이 더 많은 지역은 무려 150개 이르고, 남성의 순유출이 더 많은 경우는 전북 임실과 순창, 강원 인제군 등 12개 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도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북 상주·고령과 부산 동구·사하구·수영구, 경남 의령과 남해 등 영남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은 유지되었다.

[그림 3-4] 지방 청년들의 서울로의 순이동 규모의 성별 차이 분포(202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그림 3-5] 지역 단위별 19~34세 청년인구의 성비 구성 추이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이동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은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출발지인 지방의 지역 차원에서 인구 규모의 감소와 청년의 유실로 인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심화를 초래한다. 그와 함께 이동성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역 인구구조 내에서 새로운 불균형의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유출의 성비가 어긋나는 것은 지역 차원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실제 청년인구(19~34세) 성비의 지역적 차이에서 확인된다. 전국 단위에서는 과거 80~90년대에 성행했던 태아 성별 진단을 통한 낙태로 성비의 왜곡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사라져 정상 수준의 성비를 보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더 많은 여초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계열적으 로도 전국 성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여초 현상이 오히려 더 강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인구이동 성별 차이와 지역의 상호작용성

흥미로운 사실은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순이동에서 여성의 성비가 더 높은 '수도권 이주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수도권 간의 이동에서 여성의 이동성이 더 높지는 않았다. 전체 이동의 구성을 보면 지방-수도권의 총이동의 각각의 방향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순이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청년 여성의 순유출률이 높은 것은 청년 여성의 이동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비대칭성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강하지만, 수도권의 남성 청년들이 지방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 수도권-지방 인구이동의 연령별 성비 구성

(단위: %, 명)

	지방 →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 지방		순이동(수도권 기준)	
	2013	2020	2013	2020	2013	2020	
20~34세	117.9	107.5	124.9	121.8	95.2	87.6	
35~44세	122.9	131.2	131.0	123.2	177.2	891.4	
45~54세	107.4	130.8	118.6	130.5	169.3	126.9	
55~69세	81.0	96.1	90.5	104.7	125.7	160.3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표 3-2〉 수도권-지방 성별 인구이동 규모 비교

(단위: %, 명)

구분		지방 →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 지방		순이동(수도권 기준)	
		남	녀	남	녀	남	녀	
	20~34세	109,631	92,990	88,779	71,076	20,852	21,914	
2012	35~44세	35,561	28,924	44,537	33,989	-8,976	-5,065	
2013	45~54세	22,757	21,191	30,684	25,873	-7,927	-4,682	
	55~69세	16,758	20,694	23,786	26,284	-7,028	-5,590	
	20~34세	124,170	115,517	81,815	67,153	42,355	48,364	
2020	35~44세	38,232	29,150	35,540	28,848	2,692	302	
2020	45~54세	28,043	21,447	30,106	23,073	-2,063	-1,626	
	55~69세	25,456	26,484	31,980	30,554	-6,524	-4,070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한편 인구이동성의 성별 차이는 연령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차이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여성은 20대 후반에 들어서면 전체 이동성이 낮아지며, 그와 함께 수도권 등 장거리 이동의 비율은 낮아지고 시도 내 이동의 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시 지역, 특히 인구위기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구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광역시일반: 49.8% → 62.1%, 광역시 위기지역 66.9% → 77.3%). 이는 지역의일자리 제공 여건이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 더 양호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지의 차이가 이동성(이동률)의 차이에서도 일관되게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이러한 거주지에 따른 연령별 인구이동 목적지 구성의 차이는 남성에게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 출발지에 따른 인구이동 목적지 구성의 성별 차이

(단위: %)

		목적지						
	- 구분	2	0대 초반 남	성	20대 초반 여성			
		수도권	타 시도	시도 내	수도권	타 시도	시도 내	
	광역시 일반	34.2	14.0	51.8	36.8	13.4	49.8	
	도 지역 일반	45.4	28.2	26.5	48.3	28.9	22.8	
출발지	광역시 위기지역	24.0	7.8	68.2	24.6	8.5	66.9	
	도 위기지역	40.7	31.1	28.2	41.7	34.0	24.3	
	_	20대 후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			
		수도권	타 시도	시도 내	수도권	타 시도	시도 내	
	광역시 일반	32.2	13.0	54.8	26.9	11.1	62.1	
	도 지역 일반	43.7	27.0	29.4	41.5	26.9	31.6	
출발지	광역시 위기지역	22.0	9.2	68.8	16.2	6.4	77.3	
	도 위기지역	37.9	30.9	31.2	34.3	32.2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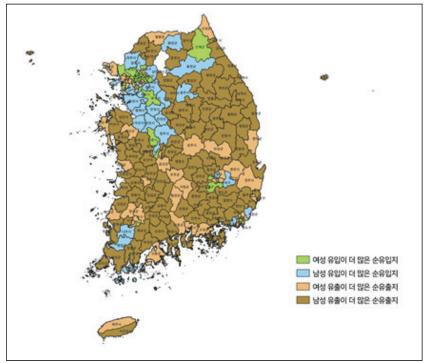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이동성의 성별 차이는 연령별 이동률의 분포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타 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기에 이동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모든 지역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의 이동률 증가는 직선에 가깝게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광역시 지역에서는 여성의 인구이동률 정점이 평평하게 구성되는 반면, 남성에게서는 그보다 더 첨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도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첨도가 높은 정점 구성을 그린다(부록 참조).

#### 3. 순이동 성별 차이의 실제 원인: 이동성의 반전

이 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지방 청년의 순유출지라고 하더라도 유출의 규모를 보면 남성의 유출량이 더 많은 순유출지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구 유출입의 전체적규모와 순이동 수준에서 성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6]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에 대한 성별 유형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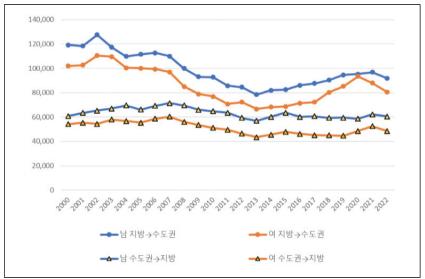
다시 말해, 지방 지역에서 여성의 수도권 순유출 정도는 더 높지만, 그 것이 '여성이 더 많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순이동에서는 여성 청년의 순이동 값이 더 높은 지역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유출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반대로 남성의 유출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확인된다. 이는 총이동과 순이동의 경향이 분리된다는 이 연구의 첫 분석과도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남성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의 규모는 남성들이 더 높았다는 것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유입 규모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의 규모와 유입의 규모를 각각 성별로 구분하여 나타내어 보면 이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어떠한 남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더 돌아오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남성 청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의 제조업 기업에 취업하여 지방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다른하나는 남성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이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는 귀환이동일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으로 가는 계속이동과,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귀환이동 중에서도 계획된 이동(planned migration)과 수도권의 정착이 실패하여 내려오는 이동(failed migration)으로 구분할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귀환 이동하는 대졸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문헌 연구(김재홍, 도수관, 2020)나 지방에서 돌아오는 청년들의 이동 방향성 등을 고려하면, 귀환이동과 일종의 실패한 귀환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7] 2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지방 간 유입-유출 규모의 성별 차이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 제2절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조의 12)에 의거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정은 '인구감소지수'4를 근거로 하는데, 여기에는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sup>4)</sup> 사용된 지표 산출 결과를 보면 다소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인구변동 관련 지표의 구성에 관한 표준화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고, 지역 지표들이 인구감소에 실제 어떠한 정도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충 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치의 설정이나 산출방식 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 선정의 적절성이나 공정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가 포함된다. 이 지표는 지역들의 인구위기 정도를 순서대로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정도가 심각한 지역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활용된다(법제처, 2023.11.30.). 이 연구에서는 인구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이들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변동 양상

#### 가. 인구 규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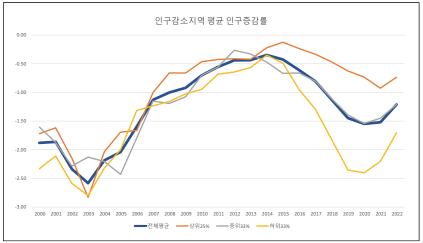
우선 인구위기 지역의 전반적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지난 20년간 인구의 감소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며, 특히 수도권의 인구 순유출과 지방에서 인구 순유입으로 인구증가가 나타났던 2010년대 초반에는 다수의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인구위기지역의 문제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위기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존재하지 않아 균형발전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증가가 해당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지역의 발전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역들의 인구이동에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는 도시 지역 인구위기 지역에는 불리한 지표인데, 밀집지역의 도시 쇠퇴도 존재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 자주도가 산식에 포함되었다면 광역시 소속 지자체들의 인구감소지수는 훨씬 더 취약성 을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많은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들이 인구감소 지역이 아닌 관심지 역으로 분류된다.

[그림 3-8]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인구증감률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한편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인구감소의 정도로 지역들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평균적 인구증감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에는 3개 지역의 평균 인구감소율의 순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 지역들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안정화 추세를 보였던 2015년 이전에서는 현재의 인구감소 수준의 순서가 나타나지 않고 지역 집단 간의 평균 인구증감률이 뒤섞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추세는 최근 10년 동안에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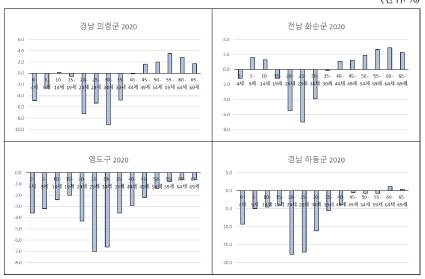
### 나. 인구이동성의 연령별 구조

우리나라에서 지역 인구 규모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 등 자연 증감의 요인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본 연구에서는 인구위기 지역들의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인구위기 지역들의 연령별 순이동률 구조를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형태가 가장 많을 것 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40대 중년층 이후 연령층에서 순유 입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청 년의 순유출이 지역 인구위기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모든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군 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과 주택개발 등의 최근 정책, 대학의 존재 등에 따라 청년 연령대에서 순이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 [그림 3-9] 인구감소 지역들의 연령별 순이동률 구조(형태)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연령별 순유출 구조는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다양하여 선명하게 유형화하기 매우 어려우며, 특히 순유입과 순유출 분포의 형태뿐만 아니라 연령별 순이동률의 크기 등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연령별 순이동률의 분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위기 지역의 연령집단의 인구이동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연령집단은 크게 20대와 30~34세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청년인구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하 연령은 유소년 그룹, 이후 연령은 중장년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인구는 이동이 매우 낮고, 돌봄 관련 시설 입주 등의 예외적 사항이 많아 이 인구이동 유형화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연령그룹별로 5세 간격 순이동률을산출하여 각 순이동률의 합이 0보다 작으면 유출로, 0 이상인 경우는 유입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는 5세 간격 연령집단들의 순이동률의 단순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인구의 순이동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분석은 연령집단들의 순이동 방향의 조합에 초점을 둔다.

구분 결과, 총 7개의 조합이 구성되는데, 2003년, 2013년, 2020년의 순이동 조합의 구성은 〈표 3-4〉와 같다.

⟨표 3-4⟩ 지역 순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변화

(단위: 개)

	2003	2013	2020
모든 연령 순유출	57	9	24
청년인구만 순유입	2	-	1
중장년인구만 순유입	10	45	45
유소년인구만 순유출	-	2	1
유소년인구만 순유입	1	-	1
청년인구만 순유출	14	28	13
모든 연령 순유입	5	5	4
계		89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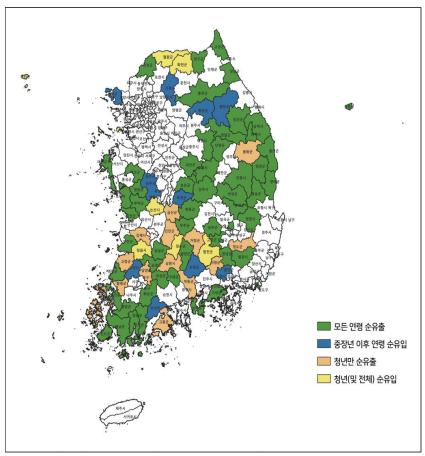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유형은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예외적인 연령집단 순이동 조합들을 제외하면 인구이동 연령구조의 유형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3년 에는 위기지역들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유형이 57개로 가장 많은 대표적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가 24개로 크게 감소한 반 면, 유소년인구와 청년인구는 순유출되지만 중장년인구만 순유입되는 유 형이 10개에서 4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그림 2-13]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들어 중장년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유출되는 양상이 굳어지는 추세와 연관성 이 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지역에서 청년과 유소년 인구의 순유출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또는 다른 지방 지역에서 중장 년 인구가 지방에 유입되는 것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인구 규모의 측면 에서는 긍정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래의 인구의 연령 진전을 고려 해보면 차츰 고령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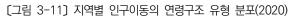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지역 인구이동 '유형의 변천'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이러한 순유입이 지역들의 변화 맥락보다는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출지 내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유출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인구감소나 고 령화 같은 인구학적 요인, 산업구조 및 실업률 등의 경제적 특징, 해안·임산 지역 등의 지리적 요인들에 의해 자체적 추동 구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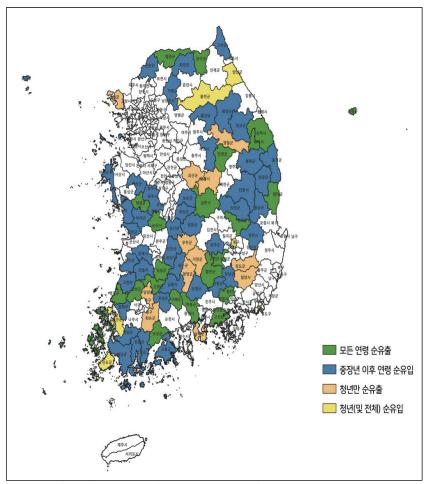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인구이동 연령구조를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그 분포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지역별 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분포(2003)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출처: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 2. 인구위기 지역 유출·유입 인구의 특성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우리나라 일반의 인구이동과 차이를 보이듯이, 인구위기 지역 역시 인구이동의 유출입 경향과 이동하는 인구의 특성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차별성 은 인구이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가. 인구위기 지역 유출 청년들의 특성

인구위기 지역의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위기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재 거주지 정보와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사용하였는데, 2020년 현재 연령 2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전 거주지가 인구위기 지역이었던 이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현재 거주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인구이동은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다를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결과의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연령이 23~34세 청년들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18~29세 연령대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8세부터 33세 사이의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발생한 이동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권역의 지방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지역에 남아있거나 시도 내 같은 시군구로 이동 한 경우보다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 주한 경우가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아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위기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지역에서 더 멀리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이동 경향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자원이론의 설명을 대입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지역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요인인 직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교육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는데, 남성은 수도권으로 떠난 이들에서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지위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경우 직업의 여건이나 지위를 떠나 어떤 지역에 있든 사무직 종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한 아직 직업 경험이 짧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5〉 지방소멸지역 거주자의 인구이동 경험별 대졸자 및 관리자·사무직 비율

(단위: %)

	님	성	여성		
구분	대졸자 비율	직업(관리자, 사무직) 비율	대졸자 비율	직업(관리자, 사무직) 비율	
같은 시군구 (이주 없음)	48.6	11.9	62.8	19.3	
시도 내 같은 시군구	48.2	14.1	64.5	21.0	
다른 시도(지방)	59.2	15.6	73.3	18.9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63.3	16.9	77.0	19.4	

출처: 통계청(Mdis), 2020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표 3-6〉 전체 인구와 지방소멸지역 유입인구의 연령별 학력 구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지방소멸 지역			전체 인구		
		40대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대졸 이상	53.5	40.6	27.5	44.0	34.9	22.1
남	고교 졸업	36.7	45.2	43.3	18.1	10.4	5.6
성	고졸 이하	9.8	14.2	29.2	37.9	54.8	72.3
	계	35,755	41,621	40,000	3,910,392	4,093,945	3,057,956
	대졸 이상	48.9	27.8	12.6	37.4	22.7	10.0
여	고교 졸업	43.1	53.6	45.4	20.4	9.0	3.5
성	고졸 이하	8.0	18.6	42.0	42.2	68.2	86.5
	계	26,255	37,572	34,861	3,850,630	4,145,557	3,242,669

출처: 통계청(Mdis), 2020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 나. 인구위기 지역 유입 중장년층의 특성

한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인구위기 지역에서 일관되게 인구유입이 나타나는 장년 이상의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도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비교하여 위기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기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들의 학력 구성을 보면,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나이가 젊어질수록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과는 상반된 경향이지만, 이들의 유입 규모가 워낙 작아 지역에 미치는 인적자원 유입의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년의 유출 규모가 중장년의 유입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위기지역의 인구이동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지방소멸지역 유입인구의 출생지 구성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40대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출생지	같은 시군구	37.0	38.3	40.1	28.3	27.1	31.9
	다른 지역	63.0	61.7	59.9	71.7	72.9	68.1
	계	35,755	41,621	40,000	26,255	37,572	34,861

출처: 통계청(Mdis), 2020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위기지역으로 전입하는 것은 경제활동이나 사회문화적 생활 여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함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은 지역과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인구위기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들의 출생지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매우 높아 40% 수준에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출생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거나, 과거 거주 경험이 있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으로의 귀환 이동(return migration)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성은 이러한 연관성을 가질 경우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따라 위기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여성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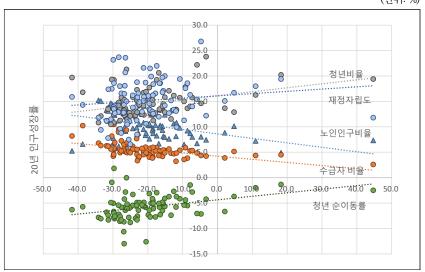
# 제3절 인구위기 지역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위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거주자가 유출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는 이주자의 입장에서 단순 사회적 지위의 차이 또는 기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이들이 거주했던 위기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양질의 인적자원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역의 인구유출은 그 자체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위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젊은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적 손실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3-12] 인구성장률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단위: %)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2002년, 2022년)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통계청(KOSIS), e-지방지표, 재정자립도 통계(검색일자: 2023.10.11.)

보건복지부(2023) 2022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지역의 인구이동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구유출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등을 제외한) 순유출이 높은 지방 지역일수록 당연히 인구감소 속도가 빨랐으며, 인구구성에서도 노인 비율이 높고, 청년

비율이 낮았으며, 청년의 순유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구이동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구학적 요인들 이외에도 인구유출률이 높은 인구위기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초수급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지역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장률 20년	평균 순이동률	노인 비율	수급자 비율	청년 비율	청년 순이 <del>동</del> 률	재정 자립도
성장률 20년	1						
평균 순이동률	.551**	1					
노인 비율	414**	.212*	1				
수급자 비율	516**	507**	079	1			
청년 비율	.347**	279**	792**	.140	1		
청년 순이동률	.356**	.160	509**	.148	.477**	1	
재정자립도	.138	.089	360**	.038	.167	.263*	1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2002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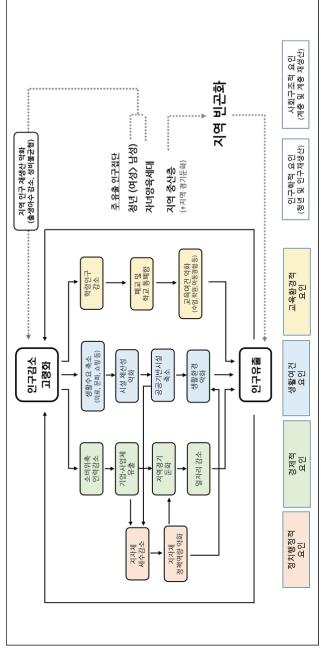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통계청(KOSIS), e-지방지표, 재정자립도 통계(검색일자: 2023.10.11.)

보건복지부(2023) 2022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이러한 인구이동과 다른 사회인구경제적 요인들과의 높은 상관성 경향은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일본 사회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Inoue, Koike, Yamauchi와 Ishikawa(2021)에서는 일본의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인구이동을 통해 강화되는데, 이러한 불평등성은 지역의 성비격차, 출산력과 고령화 수준 등 인구학적 요인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인구지리학자 Elis(2008)는 인구이동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들과의 상관성을 설명했다. 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의 경제, 생활, 교육 환경이 악화되면서 다시 인구유출을 유도하는 인구유출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유출 지

역 중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중산층이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갖게 되므로 지역을 먼저 떠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구위기 정도가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들에서는 지역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곤화가 진행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출생아 수의 감소세가 강화되고 이는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구동태적 요인은 지역의 인구감소와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이것이 다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결합되어 지역의 인구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강화한다.



종합적 약순환 구조)

[그림 3-13] 인구이동의 인구학적 사회적 파급효과(인구이동에 의한

주: 저자 작성



# 제4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발견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함의

#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주요 발견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그간 인구이동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재한 채 현황이나 문제의 단순 기술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인구이동 연구에 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인구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프레임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거나, 혹은 잘못알려져 있던 인구이동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인구학에 바탕한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이동의 총규모는 점차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 순이동의 규모, 다시 말해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변화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동량의 증가는 인구이동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인구이동의 지역 간 비대칭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비대칭성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이동과 20대의 인구이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 내에서의지방-지방의 인구이동의 비대칭성도 순이동 반등의 초기 순이동의 총량적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의 인구이동이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추세였으며,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것이 약해지는 경향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던 수도권 순이동의 약세 경향은 2010년대 중반 지방인구의 증가 시기 이후 최근에 강화되어 재등장한 것이다.

2010년대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로 인한 지방인구의 증가에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지방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의 감소 추세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경부터 나타난 수도권 집중의 재강화 추세와이로 인한 총순이동량의 증가는 매우 독특한 양상이며, 해외에서는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구이동 경향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와 특히 수도권 집중을 주도하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동 흐름과 이동의 특성에서 내적 상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은 인구이동의 내적 구성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양상을 보면, 경기도 로의 이동과 서울로의 이동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지방 청년들의 단독 전입으로 이뤄지는 서울로의 유입과는 달리, 가족 단위의 이동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은 비혼 청년 중심인데 경기도 유입인구는 이들보다 연령이 더 높은 청 년들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국내 인구이동의 양상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의 수 도권으로의 순유입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러한 경향은 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부족한 거제나 창원 등 중화학공업 지역의 특성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순유출의 여초 현상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밝혀 졌다. 이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지방 산업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순이동이 높은 것은 여성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성 이동이 여성에 비해 비대 칭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성의 약한 비대칭성은 약한 유출이 아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총이동량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규모가 컸다. 이 역시지방의 남성 중심 산업구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지방 도시/농촌 → 광역시 등 대도시 → 수도권으로 이어 지는 연쇄이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 인구이동 양상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쇄이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 사회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광역시 등 대도시로 진학하는 것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쇄이동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매우 어린 연령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시기에만 초점을 두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인구이동의 계속성 판단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인구위기도가 높은 지방에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인구이동의 선택성(migration selectivity)으로 인해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의 총체적, 구조적 쇠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인구유출은 청년, 여성, 고학력 또는 고숙련도, 중산층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 입장에서는 인재의 유출(brain drain)과 지역의

경제침체 및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역을 따라 빈곤화와 계층의 재생산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계층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 지역들의 인구위기가 단순히 개별 지역들의 인구 현안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구조화와 사회 연대성 및 사회통합의위기로 발전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확산 과정은 인구이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한편 인구위기 지역 또는 쇠퇴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상당 부분 지역과 행위자 간의 관계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위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우리 사회에 맞는 '관계 인구'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 경기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인구이동의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인구 분 포가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 간의 관계 구조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간의 격차를 만드는 지역 간의 관계 구조는 지역 의 중층적 구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위 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거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와의 관계성 과도 얽혀 있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층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지역 인구위기 문제를 실행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사업의 개발보다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 기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처 구분을 뛰어넘는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우선, 이 연구는 인구이동성을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현행 통계청의 이동성 변화 가정에 기반한 지역 인구추계(시도 단위) 방식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의 시·도 단위 인구추계 방법은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의 변화 정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결과를 산출할 위험을 안고 있다. 수도권-지방 간, 그리고 청년 인구이동의 비대칭성과 그것의 변화 경향을 반영한 지역 추계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은 인구이동과 지역 간의 관계 구조에 대한 총체적 이해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동성의 차이는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개인적 특성(예를 들면 성별, 연령, 학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정책 대응에 있어 서도 지역과 대상과 정책을 일관되게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지역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된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은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 을 통해 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인구이동의 구조가 중층적이기 때문에 구조적 대응에 있어서 역할의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기금 등은 지역 의 구체적 현안들에 대한 대응으로 활용하고, 지방시대 위원회 등은 장기 적으로 거시적인 전략 마련과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역할 분 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상이한 위원회 들이 통합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의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안정

적 인구 현황은 지역적 특성과 정책의 성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에 기반한 것이다. 이들 지역들이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과도한 개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지역의 인구유출과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인구 책임성'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업의 투자, 기업의 유치, 대학 구조조정, 신도시 개발 등 주거정책, 지역의 교육 투자, 병의원 등의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매우 광범위한영역의 정책들을 아우른다.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정책(복지 분야뿐만이 아닌 전 영역에서)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와 인구이동의 경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먹이가 없어 서울에 오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다'라는 수준의조악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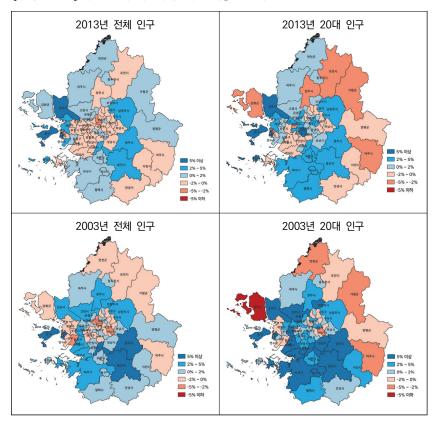
- 김재홍, 도수관. (2020).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 결정요인.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32(4), 157-181.
- 법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조의 12 (검색일자, 2023.11.30.)
- 양승훈. (2019). 중공업가족의 유토피아. 오월의봄.
- 오진호. (2021). 변동전이확률을 이용한 국내이동 예측. 한국인구학, 44(1), 1-23.
- 이상림.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 동. **한국인구학.** 32(3). 43-72.
- 이상림. (2011). **이주와 인구: 인구학적 관점의 설명**,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 킹페이퍼 2011-02
-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0.
- 이상일, 이소영. (2023). 인구이동이 인구재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의 시공간적 역동성 탐색: 우리나라 국내 인구이동에의 적용, 한국지도학회지, 23(1), 1-19.
- 이정섭, 김성환. (2014). 단계적 인구이동에 따른 출산력 변화와 과소화 : 전라북 도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9(5), 728-746.
- 최진호.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통계청. 461-494.
- 통계청(Kosis), 인구이동통계(검색일자: 2023.10.11.)
- 통계청(Mdis), 2020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 De Haas., Castles, S., H. & M.J. Miller. (2019). The Age of Migration, Fifth Ed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The Guilford Press.*

- Champion, T., T. Cooke and I. Shuttleworth. (2018). Introduction: A More Mobile World, or Not? in Internal Migration in the Developed World Are we becoming less mobile? edited by Tony Champion, Thomas Cooke, *Ian Shuttleworth. Routledge.*
- Chiswick, B.R. (2000).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n Economic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s, No. 131,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Bonn.
- DaVanzo, J. S. (1983). Repeat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o Moves Back and Who Moves 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4), 552–559.
- De Haas, H. (2021). A theory of migration: the aspirations-capabilities framework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9(8).
- Elis, V. (2008). The Impact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es. in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edited by F. Coulmas, H. Conrad, A. Schad-Seifert, and G. Vogt. 861-878. Brill.
- Inoue, T., S. Koike, M. Yamauchi, and Y. Ishikawa. (2021). Exploring the impact of depopulation on a country's population geography: Lessons learned from Japan. *Population space and place*. 28(5).
- Kiker, B F & Traynham, Earle C, Jr, (1976). A Comment on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4(3): 885-888,
- Lee, 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47-57.
- Massey, D.S.,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and J.E.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 ~466.
- Miller, A. R. (1977). Interstate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S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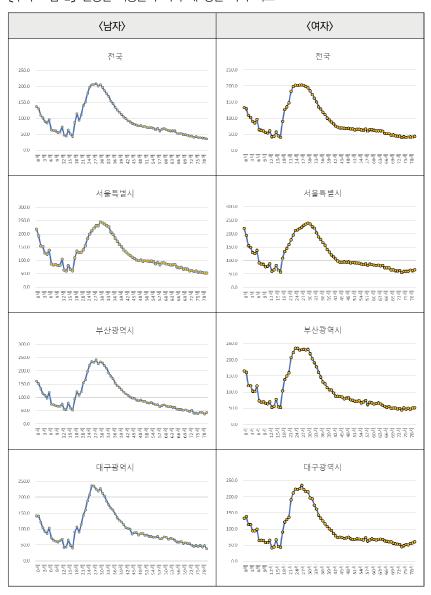
- Social-Economic Differences by Type of Move. *Demography* 14(1): 1-17.
- Stark, O. (1991). Migration Incentives, Migration Types: The Role of Relative Deprivation, *Economic Journal* 101, 1163-78.
- Taylor, J.E., P.L. Martin, and M. Fix. (1997). Poverty amid Prosperity: Immigration and the Changing Face of Rural California.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Tyrrell, N. and P. Kraftl (2018). Lifecourse and internal migration, Naomi Tyrrell and Peter Kraftl in *Internal Migration: Geographical Perspectives and Processes,* edited by D. P. Smith, N. Finney, N. Walford, p. 15-29.
- Van Hear, N. (2014). Reconsidering Migration and Cla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1): S100-S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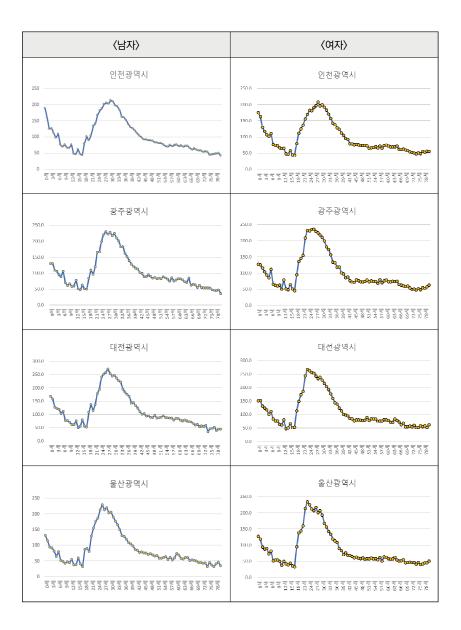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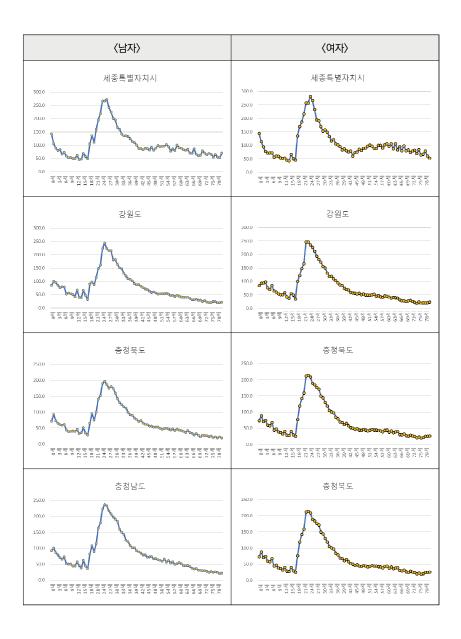
[부록 그림 1] 수도권 시군구 지역들의 순이동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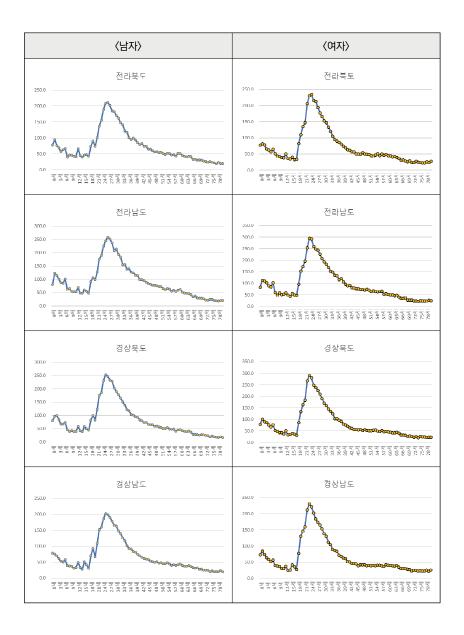


[부록 그림 2] 연령별 이동률의 지역 내 성별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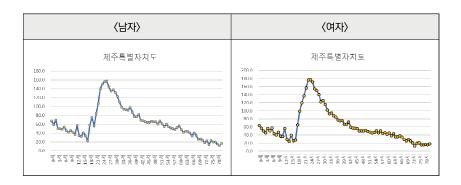








## 110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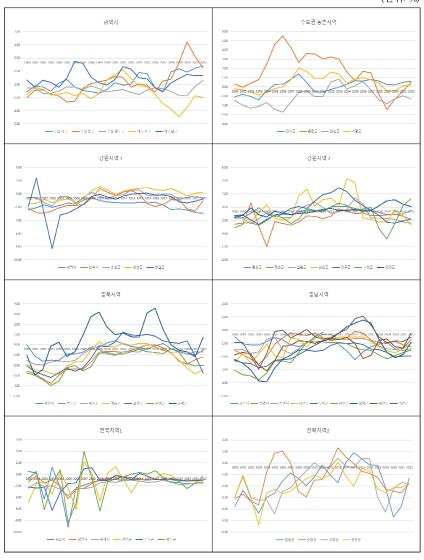
[부록 그림 3] 인구위기 지역들의 평균 순이동률 추이





## [부록 그림 4] 인구위기 지역들의 권역별 순이동률 추이

(단위: %)



## 112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